

‘생각의 문’ 건축과 예술의 경계 허물다

미지의 문

김종진 지음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 관습적인 생각과 방법에만 갇혀 공간을 재단하지 말고 낯설어도 유연한 삶의 환경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카페-은행’을, 로버트루트-벤스타인의 말대로 ‘그것이 무엇인가’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은행이나 카페냐를 언어의 개념으로만 규정하려 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 될까’에 초점을 맞추면 칭하는 말보다 그 안의 삶을 더 들여다보게 된다. 새로운 생각과 공간이 탄생할 수 있다. ‘무엇’ 대신 ‘어떻게’에. ‘명사’ 대신 ‘동사’에 무게가 실리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현대 예술과 관련한 책은 이론과 사조 때문에 접근하기 힘들다. 지나치게 많은 지식의 과잉과 개념이 투영되어 있다. 예술 작품을 감상하듯 정해진 답이 아니라 자신만의 특별한 길을 찾게 해주는 책이 필요한 이유다.

건축가의 눈으로 본 공간과 예술에 관한 책이 나왔다. 건축대 건축전문대학원 김종진 교수가 펴낸 ‘미지의 문’은 현대 건축, 현대 예술을 중심으로 ‘창의적 사고’와 ‘실용적 발달’에 관한 이야기를 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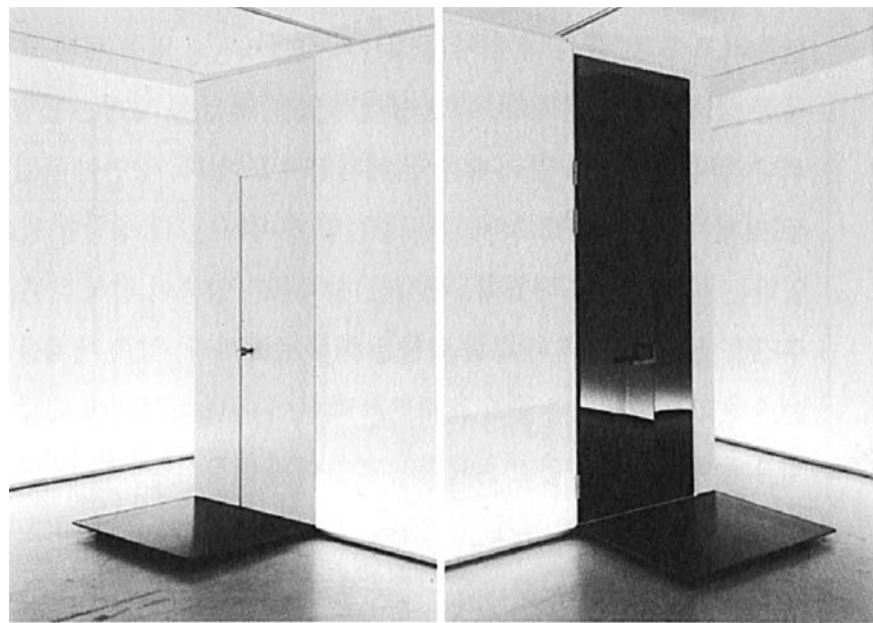
고 있다. 영국 건축협회 건축학교와 미국 하버드대학교 디자인대학원을 졸업한 저자는 연구와 디자인 작업을 병행하는 양수점장 건축가다.

‘공간과 예술, 그 너머의 생각’이라는 부제가 말해주듯 책은 건축과 예술의 만남이 이루어진 이색적인 에세이다. 지난 2011년 전작 ‘공간 공감’에서 오감과 건축의 관계를 풀어냈던 저자의 시각은 건축뿐만 아니라 다른 예술 분야까지 아우르며 외연이 넓어졌다.

사실 ‘건축’과는 다르게 ‘공간’은 좀더 넓고 추상적인 개념이다. 저자의 시각에 건축 밖의 예술을 논할 때도 ‘공간’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것은 그 때문이다.

각각의 장은 모두 ‘경계’, ‘사물’, ‘차원’, ‘행위’, ‘현상’, ‘장소’라는 6개 개념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개념들은 현대 예술에서 다루어지는 본질적인 문제들이다. 저자는 ‘미지의 문을’ 여는 열쇠로서 이들 개념을 차용한다. 달리 말하면 이론이나 사실을 담은 ‘건축-예술사’나 ‘건축-예술 이론서’가 아닌 개인적 생각을 담은 예술 에세이로 읽어도 무방하다는 의미다.

흥미로운 점은 저자가 건축가인 만큼 설계안과 건축물 내용이 적지 않지만 철학과 문학, 미술, 음악을 비롯한 다른 장르의 내용도 하나의 예시로 제시된다. 일테면 이렇다. 버지니아 울프의 ‘자기만의 방’에서 독립된 공간이 허락되지 않았던 19세기 여성의 삶에 안타까워하거나(‘우리를 둘러싼 경계들’), 바흐 곡 ‘카논 토



최문규 작 ‘소통하는 경계. 문.’

(호형출판 제공)

노스’에서 무한성을 추구한 인간의 열망을 보기도 한다(‘무한을 느끼게 하는 공간’).

또한 남아공 케이프타운의 ‘자이즈 현대미술관’을 통해서도 단면 이면의 숨겨진 차원, 다시 말해 동일성과 다양성의 세계를 보여준다(‘단면이 드러내는 이면’).

저자는 무엇보다 건축과 예술은 별개라는 편견과 장르간 경계를 허문다. 사실 현대건축물에는 설치미술 작품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현대미술 작품 가운데에는 건축적 방식으로 창작된 것도 적지 않다. 현대예술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

소가 할 수 있는 혼종(昏鐘)적 성격이야말로 경계 허물기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저자가 책 제목을 ‘미지의 문’으로 선택한 궁극적인 이유다.

“이는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한다. 하나는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의미다. 문(門), 즉 작품을 통해 새로운 생각의 차원, 공간의 경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다. 다른 하나는 문 자체가 스스로의 존재의미를 가진다는 사실이다. 통과하는 수단으로서의 문일 뿐만 아니라 예술적 의미와 가치를 지니는 문인 것이다.”

(호형출판·1만8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천문학자, 별처럼 시처럼 과학을 읽다

이명현의 과학책방

이명현 지음



50대 중반인 그는 초등학교 때부터 천문잡지 애독자였다. 고등학교 때 유리알을 갈아서 직접 망원경을 만들었고 아마추어 천문학 동아리 핵심 멤버였다. 대학(연세대-네덜란드 호르닝엔 대학교 박사)에서는 천문학을 공부했고 지금은 외계 지적 생명체를 탐색하는 세티 연구소 한국 책임자다. 또 별을 보며 성장기를 보냈던 삼정동 옛집에 과학자와 과학자들이 모여서 문을 연 ‘과학책방 같다’의 대표도 맡고 있다.

아마도, 과학책은 진입장벽이 가장 어

려운 장르 중 하나일 것이다. 그럴 땐 길라잡이가 필요한데 천문학자 이명현 만큼 안정맞은 사람이 없다.

‘별처럼 시처럼, 과학을 읽다’라는 부제가 붙은 ‘이명현의 과학책방’은 과학 서평집이다. 이 책은 50여권에 달하는 과학책에 대한 친절한 소개인 동시에 다양한 경험과 이야기가 담긴 ‘자전적 과학에세이’다. 여기에 전자 ‘이명현의 별 헤는 밤’을 통해 시와 소설을 사랑하는 풍부한 인문학적 감성을 보여준 그의 글쓰기가 어우러져 책은 재미있게 읽힌다.

저자는 과학책의 콘텐츠와 자신의 경험을 엮어내며 달력, 날씨, 진화, 외계인 같은 친숙한 과학적 주제들에서부터 블랙홀, 양자역학, 빅뱅, 힉스 입자 같은 어려운 과학 이야기를 펼쳐낸다.

아폴로 11호를 타고 달 표면에 자신의 흔적을 남긴 닐 암스트롱과 달리 사령선에 홀로 남아 지구로 귀환을 준비하던 마이클 콜린스가 펴낸 ‘플라이 투 더 문’ 등은 한번쯤 읽어보고 싶은 책이다. ‘인생은 별처럼 꿈꾸는 것이다’라고 늘상 말했던 ‘아폴로 박사’ 조경철의 저서, 칼 세이건의 ‘콘택트’ 이정모·정재승 등 국내 과학자들의 책들도 눈길을 끈다.

책은 서점을 찾은 이들에게 책 큐레이션을 해주듯, 다섯 가지 테마로 구성했다. 1부 ‘우주와 별과 지구의 아름다움’은

오로라, 별자리, 블랙홀, 외계 생명체 같은 천문학적 주제를 한데 모았으며 2부 ‘한국 과학자가 쓴 과학책’은 우리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녹아있어 훨씬 편하게 읽히는 국내 과학자들의 저서를 통해 중력, 달력, 영화, 일기예보, 진화심리학 등에 대해 들려준다.

3부 ‘과학자는 누구인가?’는 과학자들의 생생한 현장 이야기로 천문대 계산기로 살았던 천재 소녀, 칼 세이건과 스티븐 호킹의 열정적인 인생 등이 그려지며 4부 ‘세상의 온갖 궁금증’에서는 죽음, 신, 우주의 시작과 끝, 뇌의 역할 등 과학이 묻고 답하는 세상의 주제를 다룬다.

5부 ‘과학적으로 사고하는 법’은 진화론에 대한 흔한 오해, 기적보다 경이로운 과학, 수학으로만 그려내는 세상의 모습 등 과학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펼쳐지는 또 다른 세상을 소개한다.

(사월의 책·1만7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우는 법을 잊었다=어머니의 조각난 기억을 붙잡고 생의 끝자락에 서 있는 일흔두 살의 후유코. 그녀는 지매와 파킨슨 병을 앓는 어머니를 7년간 집에 모셔 지극정성으로 간병한다. 후유코의 어머니는 딸을 ‘엄마’라고 부를 정도로 기억이 흐릿하다. 오치아이 게이코의 장편 ‘우는 법을 잊었다’는 어머니를 간병하고 어린이책 서점을 운영하는 후유코의 일상과 죽음에 대한 성찰이 어우러져 우리에게 진중한 감동을 전해준다. <한길사·1만4500원>

▲우주에도 우주처럼=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저 별들 중에도 생명이 존재할까’라고 상상하던 소년은 훗날 지구물리학자가 되었다. 도쿄대학 지구행성과학 교수인 아베 유타키는 루게릭병과 싸우며 3년간 이 책을 집필했다. 기후 연구자인 아내 아베 아야코와 함께 행성의 형성 과정을 함께 연구한 ‘논문 육지 행성의 생존한계’를 해외 학술지에 발표해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다. 이 책은 그 연구를 시작으로 ‘행성에서 생명이 탄생할 수 있는 조건’의 탐색 과정을 정리했다.

<한빛비즈·1만6000원>

▲정률(The Law)=공공 관계 훈련 전문가 리웨이원이 쓴 이 책은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법적으로 설명한다. 소개념 법칙은 위대한 인물이 역설한 지혜를 담고 있고, 모두 수없이 많은 경험을 통해 증명되고 이야기된 것들이다. ‘거듭되는 실수는 실력’이라 말하는 리웨이원은 ‘실력은 일종의 격려와도 같다’고 역설

한다. 성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는 무수한 실패가 쌓여 있기 때문이다. <마리서사·1만6000원>

▲혐오표현은 왜 재일조선인을 겨냥하는가=“변태 조선인은 일본에서 나가라!” 일본 사회에서 재일조선인을 겨냥해 등장하는 혐오표현이다. 책은 일본의 폭력적 인종주의의 실태를 고발하고 재일조선인의 역사와 사회적 조건을 짚어본다.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력적인 인종주의의 역사적으로 살펴보고 그 사회적 조건과 원인을 조망한다.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와 사회를 파괴하는 혐오표현의 위험성에 경종을 울린다. <산처럼·1만8000원>



어린이·청소년 책

▲나뭇가지 아이와 하나면서 다섯인 이야기=‘나뭇가지 아이’라 불리는 아이는 어느 날 문 앞에서 덩그러니 버려진 장화를 발견한다. 장화를 신은 아이는 호랑이 인형을 안고 스스로 잠이 들어 꿈속 여행을 시작한다. 벨기에 작가 안 에르보는 잉크, 연필, 킷 아웃, 클라주와 수채 물감 등 다양한 재료와 기법을 넘나들며 보이기도 잡히지도 않는 추상적인 개념을 작가 특유의 기발한 상상력으로 구체화했다. <한울림어린이·1만3000원>

▲열다섯 생쥐 가족과 아주 특별한 인형의 집=아름답기로 유명한 인형의 집에서 사는 퍼크 씨네 열다섯 생쥐 가족의 아기 생쥐들은 집을 새로 단장하기로 한다. 하지만 물걸레로 청소를 하다 그만 벽지가 찢어지며 오히려 엉망이 된다. 이를 발견한 저택의 백작은 어디론가 집을 보내 버린다. 갑자기 지날 곳을 잃게 된 퍼크 씨네 가족은 어떻게 이 위기를 이겨낼까. ‘패딩턴 배어’ 시리즈 마이어 본드가 세상에 마지막으로 남긴 이야기다. <바둑이하우스·1만2000원>

▲ 짹짹! = 아기 새가 개구리들이 사는



연못가 풀밭 위로 떨어졌다. 짹 짹 놀란 동물들은 저마다 짹짹! 개굴개굴! 소리쳤지만 서로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다. 그러다 갑자기 아기 새가 “개굴개굴!” 소리쳤다. 이번에는 개구리가 “짹짹!” 소리쳤다. 여러 동물의 말을 하는 아기 새가 동지 밖 세상으로의 모험을 펼친다. 독일 작가 마틴 발트사이트는 유쾌한 그림 이야기로 말의 힘을 설명한다. <한울림어린이·1만2000원>

키농샤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18년 9월호

8월 31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특집

비엔날레의 가을, 예술이 물드네

2018광주비엔날레, 2018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개막

화가 한희원의 문화 기행-상

화가 한희원의 조지아-아르메니아 그림 여행
“신화의 눈물 위에 피어난 꽃을 만나다”

노중훈의 꿈의 여행

해발 3천 미터에 걸린 구름바다 중국 쓰촨

동네 책방에 빠지다-책방별곡

성스럽고 아름다운 마스트리히트 도미니칸 서점

수석기행

“이번 추석은 서로에게 한걸음씩 다가가요”

에향 초대석

다산연구소 이사장 박석무

“반세기 다산연구, 기운 다할 때까지 해야죠”

문학이 숨 쉬는 문학관을 찾아서

김승욱, 정채봉의 순천문학관

해의 문화 현장

석탄 대신 예술을 캐내는 에센 줄페라인 복합문화단지

지역의 문화행사

즐거움 가득한 전남의 가을 축제들

정윤수의 위대한 예술가들의 저항과 선택

카스와 다비드 프리드리히 & 윌리엄 터너 새로운 열망 화폭 채운 ‘낭만주의’ 화가

음식 이야기

자연과 정성으로 차려내는 밥상의 비결

에향이 만난 이사장

KIA의 믿음직한 중고신인 투수 황인준

문화 화제

광주가 낳은 국창을 기린다

제26회 임방울 국악제

밤낮 없이 아름다운 낭만도시 여주 축제

파랗한 체협으로 스트레스 순삭